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함께 하겠습니다.

교육부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함께 하겠습니다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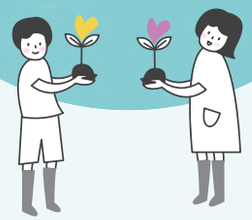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제자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선생님의 제자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 안내



교육과정을 개정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 06

교육과정을 혁신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07

학교 급별로 이렇게 변화됩니다. • 08

교과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 12

학교 현장의 의견,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 14

새 교육과정 정착, 이렇게 지원합니다. • 16

교육과정을 개정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미래 사회에는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 보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선택, 조정,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성취도는 높지만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 동기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 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성취도	흥미도	성취도	흥미도
수학	2위	50위	1위	41위
과학	1위	48위	3위	26위

TIMMS(수학, 과학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평가) 2011년 : 초등학교 50개국, 중학교 42개국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문 · 이과 칸막이 없는 인문 · 사회 ·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 소양을 토대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두루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입니다.

미래 사회 역량을 갖춘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인재 육성,
그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학생의 참여 활동을 강화하여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하며,
학습의 흥미와 동기를 높여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행복교육을 구현하는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입니다.

교육과정을 혁신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핵심역량을 반영하며 교육과정을 개선하였습니다.**
  - 교육 전반에 걸쳐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을 함양하도록 하였으며, 교과별로 특성에 맞는 교과 역량을 제시하였습니다.

- **인문 · 사회 · 과학기술 소양을 기르고, 인성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 생각하는 힘, 자연현상과 사회 문제를 통합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고, 타인과 협력하고 배려하는 인성 함양을 강조하였습니다.

-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이 가능하도록 교과의 학습량을 적정화하였습니다.**
  - 각 교과의 학습내용을 핵심 개념 및 원리 중심으로 구성하여 적정화하고, 학습 경험의 질을 개선하여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교육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 **교수 · 학습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교실수업을 혁신하고자 하였습니다.**
  - 토론학습, 협력학습, 탐구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교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수 · 학습 방법을 강화하고 과정 중심 평가를 확대하여 학생들의 활발한 수업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학교 급별로 이렇게 변화됩니다.

초등학교

- 1~2학년의 수업 시수를 주당 1시간 늘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으로 확보하고, 증가된 시간은 '안전한 생활'로 편성 · 운영합니다.

- 5~6학년 실과 교과의 정보 관련 단원을 ICT 활용 중심에서 소프트웨어(SW) 기초 소양 내용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단위 배당 기준 |

구 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교과(군)	국어	국어 448	408	408
	사회/도덕		272	272
	수학	수학 256	272	272
	과학/실과	바른 생활 128	204	340
	체육	슬기로운 생활 192	204	204
	예술(음악/미술)	즐거운 생활 384	272	272
	영어		136	204
	소계	1,408	1,768	1,972
창의적 체험활동		272 → **336** **안전한 생활 (64)**	204	204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		1,680 → **1,744**	1,972	2,176



중학교

- 각 교과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핵심 개념 및 원리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적정화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학습에서 행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 자유학기에는 중간 · 기말고사 등 지필식 총괄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학생들이 체험 중심의 교과 활동과 함께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마음껏 탐색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단위 배당 기준 |

구 분		1~3학년
교과(군)	국어	442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
	수학	374
	과학/기술 · 가정/ **정보**	646 → **680**
	체육	272
	예술(음악/미술)	272
	영어	340
	선택	204 → **170**
	소계	3,060
창의적 체험활동		306
총 수업 시간 수		3,366

※ 현행 선택 교과(군)의 '정보'를 『과학/기술 · 가정/정보』 교과(군)으로 이동하였음

학교 급별로 이렇게 변화됩니다.



일반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포함)와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 모든 학생들의 기초 소양 함양과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의 7개 공통 과목을 신설하였습니다.
- 기초 교과 영역* 이수 단위를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넘지 못하게 하고, 기초 교과 영역에 한국사(6단위)를 포함함으로써 국어, 수학, 영어 비중을 사실상 6단위 감축하였습니다.

  * 기초 교과 영역 : (현행) 국어 · 수학 · 영어 → (개정) 국어 · 수학 · 영어 · 한국사
- 진로와 적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 과목(일반 선택, 진로 선택)을 개설하였습니다.

| 단위 배당 기준 |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단위)	필수 이수 단위	자율 편성 단위
교과(군)	기초	국어	국어(8)	1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수학(8)	10	
		영어	영어(8)	10	
		한국사	한국사(6)	6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8)	10	
		과학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12	
	체육 · 예술	체육		10	
		예술		10	
	생활 · 교양	기술 · 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16	
	소계			94	86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산업 분야를 17개 교과(군)별로 재편성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을 반영하였습니다.
- 기본 교양을 갖추기 위한 보통 교과와 직업 기초 능력 향상에 필요한 전문 교과를 안배하여 일과 학습을 함께 준비하는 진로 설계를 돕습니다.

| 단위 배당 기준 |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단위)	필수 이수 단위	자율 편성 단위
교과(군)	보통 교과	기초	국어	국어(8)	24	학생의 적성 · 진로와 산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수학(8)		
			영어	영어(8)		
			한국사	한국사(6)	6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8)	12	
			과학	통합과학(8)		
		체육 · 예술	체육		8	
			예술		6	
		생활 · 교양	기술 · 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10	
		소계			66	28
	전문 교과 II	17개 교과(군) 등			86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교과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국어

– 초 1~2학년에 한글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특히 1학년 1학기 한글교육 시간을 현행 27차시에서 62차시로 늘렸습니다.
– 초 · 중학교에 활동 중심의 연극 단원을 개설하였습니다.
– 초 3학년부터 매 학기 수업시간에 책 한 권을 읽고, 생각을 나누고, 쓰는 통합적인 국어 활동을 활성화하였습니다.
※ 초8권, 중6권, 고6권

사회

– 사회현상의 기본 개념과 탐구 방법을 바탕으로 핵심 개념을 선정하여, 초 · 중 · 고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통합사회'를 신설하여 사회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과목을 신설하여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도덕

– 교과 교육을 통해 도덕함(Doing Moral:도덕탐구, 성찰, 실천)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식 암기 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도덕적 실천을 강조함으로써, 실질적인 인성, 도덕성이 함양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수학

–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학습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적정화하였습니다.
–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용 수학',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등을 신설함으로써 선택 과목을 다양화하였습니다.

과학

– 자연과학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분과 학문적 지식수준을 넘어 자연 현상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기초 소양을 함양하고 융복합적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통합과학' 과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술 가정

– 실과의 ICT 활용 교육을 소프트웨어(SW) 교육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기술 · 가정의 건설 · 제조 · 생명 기술 내용을 통합하여 체계화하였으며, 발명 · 첨단 기술 내용을 강화하였습니다. 생활안전, 부모교육 · 아동학대 등 안전관련 내용을 체계화하여 대단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정보

– 중학교는 필수 교과로, 고등학교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컴퓨팅 사고력과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통해 일상생활과 타학문 분야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체육

– 적극적 신체활동 참여를 통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정규교과 외 체육활동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활동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 고등학교에 평생 체육활동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심화 · 분화된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신설하였습니다.

음악

– 음악을 중심으로 다른 영역 및 교과와의 연계를 통해 교과 지식을 심화시키고 학습 경험을 확장시키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놀이, 건강, 진로 등 학교 내외에서 음악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음악의 실생활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미술

– 삶 속에서 미술 문화를 향유하는 능력 함양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고등학교에 '미술 감상과 비평'을 신설하였습니다.
– 체험 · 표현 · 감상의 통합적 교육을 강조하고, 학생 성장 중심의 과정평가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영어

– 언어발달 단계와 학생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초 · 중학교에서는 '듣기'와 '말하기', 고등학교에서는 '읽기', '쓰기' 학습을 강조하였습니다.
– 어휘와 언어 형식을 단계별로 제시하여 학생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의 의견,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 **범교과 학습 주제가 너무 많아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이 어렵습니다.**
  - ➡ 현재 범교과 학습 주제가 39개로 너무 많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의 자율권이 축소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10개의 대주제로 통합 · 조정 하였습니다.

- **초등학교 안전교육은 별도의 교과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 초등학교 안전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체험 중심의 활동으로 편성 ·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고등학교의 학생 과목 선택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 ➡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하도록 하였습니다.
  - ➡ 또한 학교는 선택 과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이 이수하기를 희망하는 일반 선택 과목을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일반고(자율고 포함)의 경우, 다양한 과목 이수를 권장하기 위해 모든 학생이 진로 선택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함

- **고등학교 교육이 국어, 수학, 영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 기초 교과 영역* 이수 단위를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넘지 못하게 하고, 기초 교과 영역에 한국사(6단위)를 포함함으로써 국어, 수학, 영어 비중을 사실상 6단위 감축하였습니다.
    * 기초 교과 영역 : (현행) 국어 · 수학 · 영어 → (개정) 국어 · 수학 · 영어 · 한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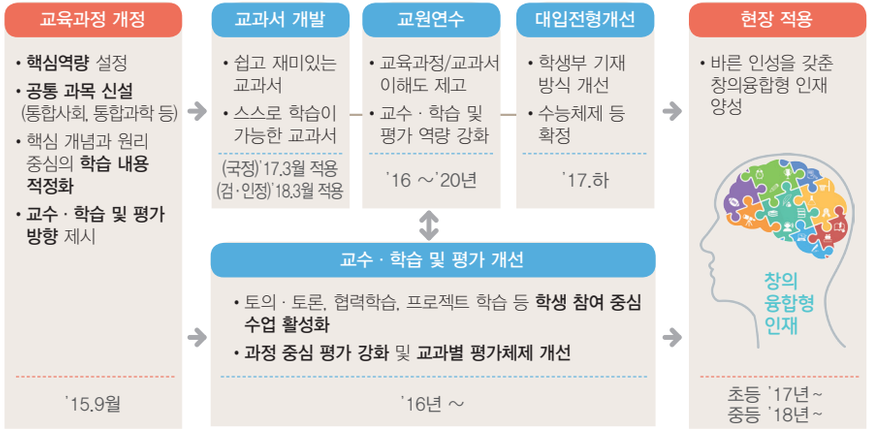
- **수학 교과의 학습량이 너무 많고 내용이 어렵습니다.**
  - ➡ 내용 감축, 통합 등을 통하여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을 통해 지나치게 심화된 내용을 평가에서 다루지 않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학습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 ➡ 특히, 체험, 탐구활동 중심으로 교실 수업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 · 학습 방법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수학의 유용성, 가치 인식 등 학생의 정의적 측면을 보다 강조하였습니다.
    ※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의 예) 무게 단위 사이의 관계에 대해 평가할 때, 1g과 1t 사이의 단위 환산은 다루지 않는다.

성취기준의 재조정 예시

| 이동 | 정비례 · 반비례 (**초6 → 중1**), 이차함수의 최대 · 최소 (**중3 → 고1**)
| 삭제 | (초)아르(a)/헥타르(ha), (중)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 (고)모비율의 추정
| 통합 | 곱셈공식(중2)을 인수분해(중3)와 통합

새 교육과정 정착,
이렇게 지원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 체계도



※ (중장기 추진과제) 교원자격 표시과목 개선 및 교원양성 기관 교육과정 개편 등

● 교과서 개발

–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재미있고 질 좋은 교과서 개발

– 꼭 배워야 할 핵심적인 개념 중심으로 교과서를 개발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 경감



● 교원 역량 강화

■ 교원연수

–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 확대를 위해 교원연수 강화

– (총론) 4개 권역별 핵심교원 연수(총 1,000여명)('16.6월)

– (선도교원) 신설과목 및 교과별 선도교원 연수('16.7월~8월)

– (현장교원) 시 · 도교육청별 선도교원 활용 자체 연수(수시)

– (관리자) 교육장, 학교장, 교육전문직 연수('16.9월~)

■ 교수 · 학습 및 평가 자료 개발

– 학교급별 교수 · 학습 및 평가 자료 개발 · 보급('15.11월~'16.10월)

– 총론 및 교과별 연수자료(PPT, 동영상) 개발 · 보급('16.10월)

※ 수업 및 평가사례 등 58종(총론 5종, 교과 53종)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별 평가기준 개발 · 보급('16.12월)

■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활동 지원('16.6월~)

–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동료교사들과 함께 수업방법을 개선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학교단위, 시 · 군 단위, 시 · 도 단위로 학년별, 교과별, 주제별 등 특성화된 교수 · 학습 평가 방안 탐색 활동의 행 · 재정적 지원

■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선

–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 따른 예비교원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교원양성기관(교육대학, 사범대학)의 교육과정 개편 추진

신구 대조표

구분			주요 내용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개정 방향			• 창의적인 인재 양성 • 전인적 성장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 • 국민공통교육과정 조정 및 학교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자율성 강화	•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 모든 학생이 인문 · 사회 ·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함양 • 학습량 적정화, 교수 · 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한 핵심역량 함양 교육 • 교육과정과 수능 · 대입제도 연계, 교원 연수 등 교육 전반 개선
총론	공통사항	핵심역량 반영	〈신설〉	• 총론 '추구하는 인간상'에 6개 핵심역량 제시 • 교과별 교과 역량을 제시하고 역량 함양을 위한 성취기준 개발
		인문학적 소양 함양	• 예술고 심화 선택 과목에 '연극' 개설	• 독서교육 강화 – 초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매 학기 수업시간에 책 한 권 읽기 • 연극교육 활성화 – (초 · 중) 국어 교과목에 체험중심의 연극 단원 신설 – (고) 일반 선택 과목에 '연극' 개설 • 교과별 교육내용에 인문학적 요소 반영
		소프트웨어(SW) 교육 강화	• (초) 실과에 ICT 활용 교육 단원 포함 • (중) 선택 교과 '정보' • (고) 심화 선택 '정보'	• (초) 실과 내용을 소프트웨어(SW) 기초 소양교육으로 개편 • (중) '정보' 과목 필수화 • (고) '정보' 과목을 심화 선택에서 일반 선택으로 전환, SW 중심 개편
		안전교육 강화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안전 내용 포함	• 안전교육 내실화 – (초1~2) '안전한 생활' 신설 (64시간) – (초3~고3) 관련 교과에 단원 신설
		범교과학습 주제 개선	• 39개의 범교과 학습 주제 제시	• 10개 범교과 학습 주제로 통합 · 조정
		NCS직업교육과정 연계	〈신설〉	• 총론의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등에 반영

구분			주요 내용	
			2009 개정	2015 개정
총론	초등학교	초 1~2 수업시수 증배	〈신설〉	• 주당 1시간 증배, '안전한 생활' 신설 –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체험중심 교육으로 실시
	중학교	자유학기 편제 방안	〈신설〉	•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기준'에 자유학기 교육과정 운영 지침 제시
	고등학교	공통 과목 신설	• 공통 과목 없이 선택 과목으로만 구성	• 공통 과목 및 선택 과목으로 구성 –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구분 ※ 진로 선택 및 전문 교과를 통한 맞춤형 교육, 수월성 교육 실시
		국어, 수학, 영어 비중 적정화	• 기초 교과(국 · 수 · 영) 이수단위는 교과 총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이수단위 제한 규정(50%)이 유지됨에 따라 국 · 수 · 영 비중이 90단위에서 84단위로 감축
		특성화고 교육과정	• 전문 교과로 제시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초 과목과 실무 과목으로 구성
교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			〈개선〉	•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의 유기적 연계 강화
			〈개선〉	• 교과 교육과정 개정 기본 방향 제시 – 핵심 개념 및 원리 중심으로 학습량 적정화 – 학생 참여 중심 교수 · 학습 방법 개선 – 과정 중심 평가 확대



2015 개정 교육과정 질의 · 응답



총론

0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무엇인가요? • 22
02.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왜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나요? • 23
03. 학습량이 감축되었는데, 이로 인해 학력이 저하되지는 않을까요? • 24
04. 안전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24
05. 소프트웨어(SW)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25
06.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 학교 현장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26
07.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 27

초등학교 교육과정

01.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 28
02. 창의적 체험활동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29
03. 초등학교 안전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29

중학교 교육과정

01. 중학교 교육과정의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 30
02. 자유학기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 31

고등학교 교육과정

01.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 32
02. 대학 진학을 위해 문과, 이과로 구분한 교육과정 운영은 사라지게 되나요? • 33
03. 『공통 과목』과 교과별 필수 이수 단위는 어떤 관계인가요? • 33
04.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어떤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게 되나요? • 34
05. 새 교육과정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달라지나요? • 37
06. 『NCS 기반 교육과정』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나요? • 37

0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무엇인가요?

- 새로운 교육과정의 출발은『문 ·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었으며 이후 정책연구와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들이 인문 · 사회 ·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여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 각 교과는 단편 지식보다 핵심 개념과 원리를 제시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토의 · 토론 수업, 실험 · 실습 활동 등 학생들이 수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과정 중심의 평가가 확대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또한, 대학입시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고등학교 문 · 이과 이분화와 수능 과목 중심의 지식 편식 현상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 어느 영역으로 진로진학을 결정하든 문 · 이과 구분 없이 인문 · 사회 · 과학기술에 관한 기초 소양을 갖출 수 있으며,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한편, 새로운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과서, 대입제도, 교원 양성 및 연수 체제 등 교육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02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왜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나요?

-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 습득이 강조되면서『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할 줄 아는 실질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핵심역량을 제시하였습니다.

- 핵심역량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길러야 할 능력이며, 특히 교과에는 총론의 역량과 연계하여 교과에 맞는 역량을 제시하고, 교과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기관리 역량 –**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 **지식정보처리 역량 –**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창의적 사고 역량 –**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
- **심미적 감성 역량 –**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
- **의사소통 역량 –**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
- **공동체 역량 –** 지역 · 국가 ·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03 학습량이 감축되었는데, 이로 인해 학력이 저하되지는 않을까요?

- 많은 선진국의 교과 교육과정은 '적은 양을 깊이 있게(less is more)' 가르쳐 학습의 전이를 높이고 심층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습의 '양' 보다는 '질'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중복되는 학습 내용이나 단편 지식 등을 핵심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정선하여 감축하고, 학생의 발달 단계와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s)을 고려하여 성취기준 이수시기 이동, 학습내용 삭제 · 신설 · 통합 등을 통해 적절한 학습 수준을 제시하였습니다.

04 안전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의식이 내면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초 1~2학년의 수업 시수를 주당 1시간 늘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으로 확보하고, 증가된 시간은 '안전한 생활'로 편성 · 운영합니다.
  - 초 3학년~고등학교까지 관련 교과에 '안전' 단원을 신설하여 이론과 실천 · 체험을 체계적으로 다루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초 · 중 · 고등학교에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강화하고, 체육, 기술 · 가정(실과), 과학, 보건 등 관련 교과(목)에 안전 단원을 신설하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기반 마련

05 소프트웨어(SW)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초 · 중학교는 소프트웨어(SW)의 제작원리를 이해하고, 놀이 중심의 알고리즘* 체험과 교육용 도구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체험 등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문제해결을 위한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의미하며, 프로그래밍의 기초 단계임

  - 초등학교는 실과 교과의 ICT 활용 중심의 대단원을 소프트웨어(SW) 기초 소양 교육 중심으로 개편하여 5~6학년군에서 17시간 내외로 학습하게 됩니다.
  - 중학교에서는 선택교과였던 '정보' 과목을 『과학/기술 · 가정/정보』 교과군에 필수 과목으로 포함시키고, 교과 내용을 소프트웨어(SW)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고등학교는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보다 심화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심화 선택 과목은 '정보'를 일반 선택 과목으로 전환하고, 그 내용을 소프트웨어(SW)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06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 학교 현장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그 동안에는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학습량이 과도하여 배움을 즐기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각 교과의 핵심 개념과 핵심 원리를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학습경험의 질을 개선하여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을 제시하였습니다.
  -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면 학교 현장에서는 토론학습, 협력학습, 탐구활동, 프로젝트 학습 등 교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수 ·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의 활발한 수업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초등학교에서는 1~2학년(군)에 한글교육을 강조하는 등 유아 교육과정(누리과정)과 연계를 강화하고,
  - 초 1~2학년의 수업시수를 주당 1시간 늘리되, 학생들의 추가적인 학습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체험 중심의 '안전한 생활'을 편성 ·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중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확대됩니다.
  - 자유학기의 관련 지침 제시로 경쟁 중심의 학교교육에서 벗어나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린 다양한 교육활동의 기틀이 마련됩니다.

-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공통 과목 이수 후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은 단순히 문과와 이과로 구분되어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위해 진로에 따른 과목 편성 안내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07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 현장교원, 전문가, 시 · 도전문직, 관련 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추진하였습니다.

▶ 국가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 운영
  – 교육, 경제, 사회, 법학, 자연과학, 교원단체, 언론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로 구성하여 교육과정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 국가교육과정 각론조정위원회 구성 · 운영(8회)
  – 교과간 중복 내용을 해소하고 교과 이기주의 극복을 위해, 교육 과정 및 교과별 전문가로 구성

▶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심의회 운영
  – 운영위원회(1회), 학교급별위원회(6회), 교과별위원회(22회) 개최

▶ 국가교육과정 포럼 운영
  – 관련 기관 · 전문가 · 교원들의 의견 수렴으로 현장 적합성 높은 교육과정 개발
  – 2015년 전문가 포럼(3회), 현장교원 포럼(5회) 운영
    ※ 2014년 전문가 포럼 3회, 현장 교원 포럼 4회, 합동 포럼(1회)

▶ 시 · 도교육청 전문직 및 권역별 핵심교원 워크숍 운영
  – 교육청 교육과정 전문직 워크숍(4회), 권역별 핵심교원 권역별 워크숍(4회)을 통해 현장중심의 교육개정 개정을 위한 교과별 개정 중점 관련 의견 수렴

▶ 정책연구진 합동워크숍 개최
  – 교육과정 개발 방향 공유 및 정책 연구팀간의 소통을 통해 질 높은 교육과정 개발 체제 구축(5회)

▶ 교과별 전문가 협의회 개최
  – 교과교육과정 연구진 주최로 현안 조정 및 학습내용 적정화를 위한 교과 전문가 협의회 개최(22회 이상)

▶ 공개토론회 · 공청회 개최
  – 총론 및 교과별로 공개토론회(36회)와 공청회(40여회)를 개최하여 현장교원, 예비교사, 교육과정 전문가, 일반시민 등의 의견 수렴

▶ 현장교원 적합성 검토
  – 교과교육과정 내용 적정성, 교과간 · 교과내 중복성 집합 검토(2회), 교과별 핵심역량 중심의 학습내용 적정화에 대한 서면 검토(2회)

01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 초 1~2학년의 수업시수가 증배되었습니다.
  -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초등 수업시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 및 초등 저학년에서의 학교 돌봄 기능 확대에 대한 학부모 요구 등을 감안하여 수업시수를 주당 1시간 늘리되,
  - 학생들의 추가적인 학습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체험 중심의 '안전한 생활'을 편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 연간 수업시수 국제비교(온정덕, 2014.)

단위 : 시간(60분)

구분	한국	영국	미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1~2학년 연간시수	**560**	645 ~765	845.5	570	864	798	646

- 초 1~2학년에 한글교육을 강조하는 등 유아 교육과정(누리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특히 한글을 착실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한글교육을 현행 27차시에서 62차시로 강화하였으며, 국어, 초등통합, 수학의 읽기·쓰기 활동을 1학년 2학기부터 늘리는 등 2학년까지 모든 학생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초 1~2학년 '국어활동' 교과서는 한글 읽기, 쓰기 활동 등을 강화한 워크북 형태로 개발



02 창의적 체험활동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은 현행과 같이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을 유지하되, 학생들의 발달 수준 및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선택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학교는 4개 영역을 모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여건과 학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4개 영역 중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 1~2학년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64시간 증배하여 '안전한 생활'을 편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03 초등학교 안전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이 내면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초 1~2학년은 체험활동 중심의 '안전한 생활'을 신설(주당 1시간)하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편성·운영합니다. 이는 국어, 수학, 통합교과 등 일반 교과와의 연계 학습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생활' 영역

- 생활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재난안전
  - 주제 중심, 체험 중심으로 안전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 전개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일반 교과와의 통합 학습도 가능하도록 함

※ 일반 교과 연계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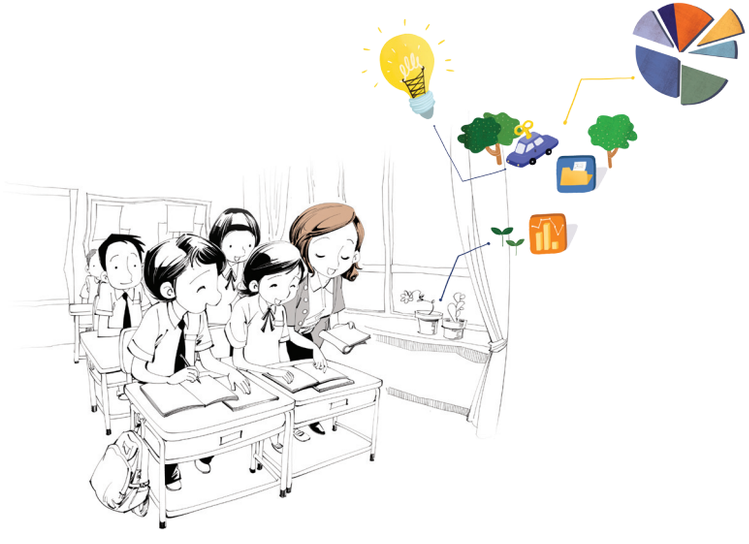
(예시) 즐거운 생활 '봄 나들이' 활동 중 '위험한 동식물로부터 보호하기' 내용 등

  - 초 3~6학년까지 체육, 실과 등 관련 교과에 '안전' 단원을 신설합니다.

01 중학교 교육과정의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가 시행되었습니다.
  -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학생들이 지필평가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체험 중심의 교과 활동과 장래 진로에 대한 탐색 · 설계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 편성 · 운영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 소프트웨어(SW) 교육 강화를 위해 '정보' 과목을 필수화 하였습니다.
  - 기존 선택 과목이던 '정보' 과목을『과학/기술 · 가정/정보』교과군으로 조정하고, 필수 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화 사회의 기초 소양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보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소프트웨어(SW)교육이 가능하도록 교과서 및 보조 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02 자유학기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 자유학기제는 학교가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권한을 갖고,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의 교실 수업을 확산하는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같이 암기식 수업을 최소화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태도와 자기 표현력 향상을 위해 협동학습, 토론 수업이 대폭 확대 될 예정입니다.
  - 또한 명사 · 전문가 특강, 독서 등의 간접 체험학습은 직접적인 체험 학습과 연계하여 폭넓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활동

- **진로탐색활동 –** 진로학습, 진로상담 · 검사, 진로체험, 진로포트폴리오 작성 등
- **주제선택활동 –** 학생의 흥미, 관심사에 기반, 교과/창체 연계 프로젝트 학습 등
- **예술 · 체육활동 –** 1학생 1문화 · 예술, 1체육 활동(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포함) 전개
- **동아리활동 –** 학생의 희망, 의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집단 활동

- 중간 · 기말고사 등 지필식 총괄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 · 발달 과정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환류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자기 주도 학습을 유도하고, 또래와의 협력학습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학생들이 지필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함으로써 교수 · 학습 활동과 연계된 자연스러운 과정 중심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01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문 · 이과의 진로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인문 · 사회 ·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공통 과목』을 도입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문 · 이과로 나뉘어 지나치게 특정 계열에 편중하여 이루어지던 지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균형 잡힌 소양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공통 과목

-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의 7개 과목으로, 문 · 이과 구분 없이 모든 고등학생들이 배워야 할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기초 소양을 함양하고 기초 학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통합사회'는 사회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9개 핵심 개념*을 선정하여 사회 현상의 특징,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 자연과 인간 삶의 조화, 사회적 갈등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는 과목으로 운영됩니다.
  * 행복, 자연환경, 생활공간, 인권, 시장, 정의, 문화, 세계화, 지속가능한 삶
- '통합과학'은 자연현상에 대한 4개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분과 학문적 지식수준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통합을 통한 융복합적 사고력 신장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물질과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 변화와 다양성, 환경과 에너지



02 대학 진학을 위해 문과, 이과로 구분한 교육과정 운영은 사라지게 되나요?

- 모든 학생들은 문 · 이과 구분 없이 공통 과목을 이수하게 되며, 진학을 위한 선택 교육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교육과정 지침에서는 문과, 이과의 이원화된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에서는 6차 교육과정까지의 운영 관습과 수능 등 대입 전형의 필요에 의해 문 · 이과의 과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지난 6차 교육과정까지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인문과정, 자연과정, 직업과정 등으로 분리 ·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학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과정을 엄격하게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 · 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인문 · 사회 ·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및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을 위해 『공통 과목』을 신설하였으며,
  - 이러한 기초 소양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 과목』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 새 교육과정 취지에 부합하는 수능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 중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2017년에 확정 · 발표할 예정입니다.

03 『공통 과목』과 교과별 필수 이수 단위는 어떤 관계인가요?

- 『공통 과목』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배워야 할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과목이고, 필수 이수 단위는 학생들의 교과 간 균형 잡힌 학습을 위해 필요한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단위를 가리킵니다.
  - 따라서, 『공통 과목』은 해당 교과별 필수 이수 단위 범위 내에서 이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어 교과의 경우, 『공통 과목』 '국어' 8단위를 이수한 이후에,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에서 개인의 진로나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필수 이수 단위인 10단위 이상을 이수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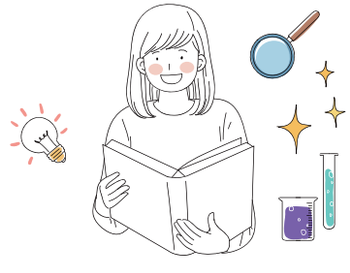
04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어떤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게 되나요?

- 모든 학생이 『공통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한 후에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습니다.
  - **『일반 선택』** : 고등학교 단계에서 필요한 각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으로, 기본 이수 단위는 5단위이며 2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합니다.
  - **『진로 선택』** : 교과 융합학습, 진로 안내학습, 교과별 심화학습 및 실생활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과목으로, 학생들은 진로 선택 과목을 통해 보다 심화된 학습이나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배울 수 있으며, 기본 이수 단위는 5단위이고,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을 허용하는 등 유연성을 보다 더 부여하였습니다.

- 학생들은 다양한 선택 과목(35쪽) 중에서 자신의 진로에 따라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학교는 학생의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합니다(36쪽 참조).

- 학교는 학생의 진로나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단위학교에서는 학생의 선택에 따라 진로 선택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해야 합니다.



보통 교과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	수학	수학 Ⅰ, 수학 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	영어 회화, 영어 Ⅰ,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Ⅱ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		
탐구	사회(역사/도덕포함)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 · 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 Ⅰ, 화학 Ⅰ, 생명과학 Ⅰ, 지구과학 Ⅰ	물리학 Ⅱ, 화학 Ⅱ, 생명과학 Ⅱ, 지구과학 Ⅱ,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 · 예술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예술		음악, 미술, 연극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생활 · 교양	기술 · 가정		기술 · 가정, 정보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 재산 일반
	제2외국어		독일어 Ⅰ, 프랑스어 Ⅰ, 스페인어 Ⅰ, 중국어 Ⅰ, 일본어 Ⅰ, 러시아어 Ⅰ, 아랍어 Ⅰ, 베트남어 Ⅰ	독일어 Ⅱ, 프랑스어 Ⅱ, 스페인어 Ⅱ, 중국어 Ⅱ, 일본어 Ⅱ, 러시아어 Ⅱ, 아랍어 Ⅱ, 베트남어 Ⅱ
	한문		한문 Ⅰ	한문 Ⅱ
	교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편성 예시)

● 각 계열은 대학의 전공을 편의상 범주화하여 예시로 나타낸 것임

구 분	경상계열(사회 중심)		어문계열(외국어 중심)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국어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고전 읽기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심화 국어
수학	수학 Ⅰ, 수학 Ⅱ	경제 수학	수학 Ⅰ, 확률과 통계	
영어	영어 Ⅰ, 영어 Ⅱ	영미 문학 읽기	영어 Ⅰ, 영어 Ⅱ, 영어 회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심화 영어 Ⅰ(전문)
사회	세계지리, 세계사, 경제, 사회 · 문화, 정치와 법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한국 사회의 이해(전문)	한국지리, 생활과 윤리, 정치와 법	
과학	물리학 Ⅰ	과학사	생명과학 Ⅰ	생활과 과학
체육 · 예술	체육, 음악, 미술	스포츠 생활	체육, 운동과 건강 음악, 연극	미술 감상과 비평
생활 · 교양	한문 Ⅰ, 실용 경제 진로와 직업, 논술		중국어 Ⅰ, 한문 Ⅰ, 진로와 직업	중국어 Ⅱ 중국어 회화 Ⅰ(전문)

구 분	예술계열(미술 중심)		이공계열(수학, 과학 중심)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국어	문학, 독서	고전 읽기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수학	수학 Ⅰ, 확률과 통계		수학 Ⅰ, 수학 Ⅱ, 미적분	기하,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 Ⅰ,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회화	영미 문학 읽기, 실용 영어	영어 Ⅰ,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회화	
사회	사회, 문화, 세계사	여행지리	사회 · 문화	사회문제 탐구
과학		과학사	물리학 Ⅰ, 화학 Ⅰ, 지구과학 Ⅰ, 생명과학 Ⅰ	물리학 Ⅱ, 화학 Ⅱ, 지구과학 Ⅱ, 생명과학 Ⅱ, 융합과학
체육 · 예술	체육, 운동과 건강, 음악, 미술, 연극	미술 감상과 비평, 미술 전공 실기, 매체 미술(전문)	체육, 운동과 건강, 음악, 미술	
생활 · 교양	일본어 Ⅰ, 한문 Ⅰ, 심리학, 철학		기술 · 가정, 정보, 논리학, 환경	

05 새 교육과정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달라지나요?

●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한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포함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안은 교육과정 적용 이전인 2017년에 확정 · 발표할 예정입니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8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1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됩니다.

※ 새로운 교육과정은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2018년부터 적용

06 『NCS 기반 교육과정』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나요?

● NCS 기반 교육과정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중심으로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할 줄 아는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입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 한 것

● NCS 기반 교육과정은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2018년도 1학년부터 적용됩니다.

– 다만, 별도로 교과서를 개발하지 않고 NCS 학습모듈*을 교과서로 활용하는 전문교과의 실무과목에 한해서 2016년도부터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 NCS 학습모듈 : 산업계 직무수요를 반영한 NCS를 교육 · 훈련기관에서 배울 수 있도록 개발한 학습교재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함께 하겠습니다.

발행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기 획 과장 남부호
교육연구관 이화, 이상수
교육연구사 박남정

제 작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31.906.7735)

ncic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ncic.go.kr